



“곰사냥 넘버원”

이강원·문성민 ‘팡팡쇼’ 남자배구, 일본 혼냈다

아시아선수권 조 1위로 8강 공격에 성공하면서 4-1로 앞서갔다. 일본도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강원이 9-6에서 오픈 공격을 꽂아넣으며 상대 기를 꺾었다. 이강원은 11-7에서도 오픈 공격을 성공했다. 김호철 감독은 12-8에서 이강원이 상대 블로킹에 막히자, 문성민을 투입했다. 문성민은 13-9에서 강력한 오픈 공격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세트에서도 이강원과 문성민 조합이 빛났다. 한국은 1세트에서 최홍석(우리카드)이 연속해서 3차례 오픈 공격을 성공해 3-0으로 앞서갔다. 최홍석은 3-1에서도 다시 오픈 공격에 성공했다. 한국은 라이트로 선발 출전한 이강원이 다소 주춤하자 문성민을 투입해 일본을 압박했다. 3~4점 차로 앞서가던 한국은 15-10에서 진상현(대한항공)의 서브 득점으로 격차를 더 벌리며 손쉽게 첫 세트를 따냈다. 일본은 특유의 조직력과 블로킹 우위를 앞세워 2, 3세트를 따냈다. 한국의 서브 리시브도 크게 흔들렸지만 4세트에서 이강원과 박주영이 맹활약하면서 승부를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갔다. 5세트에서는 한국의 집중력이 더 강했다. /연합뉴스



차준환(휘문고)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챌린지' 미디어데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준환, 4회전 점프 3차례 배치

올림픽 시즌 새 프로그램 공개 차준환의 새 시즌 쇼트 프로그램은 원리퍼블릭이 리메이크한 루이 암스트롱의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 프리는 구스타브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더 플래닛'(The Planets)에 맞춰 구성됐다. 안무는 데이비드 윌슨이 맡았다. 차준환이 쇼트와 프리스케이팅에 쿼드러플 점프를 3차례 시도함에 따라, 한국 피겨 남자 싱글 최고점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공인 최고점은 차준환이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총점 242.45점이다. 쿼드러플 토티프는 기본 점수가 10.3점, 쿼드러플 살코는 10.5점으로 3회전 점프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트리플 악셀(8.5점)보다 약 2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차준환은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대회 전 공식 훈련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박성현은 꾸준한 선수...장타·퍼트 모두 수준급”

소렌스탐, LPGA 인터뷰 훌륭한 콤비네이션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은 17일 끝난 US여자오픈에서 우승, 올해 LPGA 투어 입문 이후 첫 우승을 일궈냈다. 소렌스탐도 72승 가운데 첫 우승을 1995년 US여자오픈에서 달성한 공룡통이 있다. 그는 22년 전을 떠올리며 "그때는 나도 긴장했다"며 "그러나 경기에만 전념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나의 LPGA 첫 승으로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연합뉴스



KIA, 잠실에서 두산과 주말 원정 3연전 팻딘-헥터-임기영 막강선발 투입 총력전

챔피언의 자존심을 건 '단군 매치'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잠실로 건너가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제대로 만나는 두 팀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많은 이들은 우승 후보로 두산을 꼽았다. 탄탄한 마운드와 짜임새 있는 타선 그리고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면에서 이견 없는 우승 후보였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부상 속 주축 타자들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전반기에 기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후반기 시작과 함께 무섭게 승리를 쌓아가면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KIA는 2017시즌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1위 팀이다. 4월 12일 공동 1위로 시작해 선두 독주를 놓치지 않고 있는 KIA는 후반기 출발이 좋지 못했다. 안방에서 치른 후반기 첫 주말 3연전에서 8승 1패로 우세를 보였던

롯데에 싸움이 3연패를 당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KIA의 뒷심이 발휘됐다. KIA는 지난 25일 SK를 상대로 연장 10회 김선빈의 동점 투런과 비나디나의 기습 번트 등을 묶어 11-10 끝내기 승을 거둬 연패에서 탈출했다. 26일에도 11회까지 가는 연장 승부에서 돌아온 좌완 심동섭의 3이닝 무실점 피칭과 김주찬의 안타와 스피드로 8-7 끝내기 쇼를 펼쳤다. 탈락할 시즌의 면모를 보이며 반전을 이룬 KIA는 두산을 상대로 '가을 미리 보기'에 나선다. 8경기나 남겨두고 있는 두산은 KIA에 어려운 팀이자, 가을 잔치에서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대다. 두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전반기를 보냈다고 하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4승 4패로 KIA를 압박했다. 여기에 두산 타선의 재정보도 이뤄졌다. KIA에는 골치 아픈 상대인 양의지와 민병현이 손가락 미

세 골절에서 회복해 각각 25일과 28일 엔트리에 등록됐다. SK와의 주중 3연전을 통해 화력을 회복한 KIA는 마운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팻딘을 시작으로 헥터-임기영이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 나선다. 팻딘의 결과에 가장 눈길이 쏠린다. 힘겨운 시즌을 보냈던 팻딘은 2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8이닝 1피안타 12탈삼진 무실점의 완봉투를 선보였다. 타선 지원이 따르지 않아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올 시즌 최고의 피칭으로 한숨 돌렸다. 이번 두산전은 탐색전이기도 하다. 올 시즌 19경기에 나온 팻딘에게는 두산전 첫 등판이다. 낯선 상대의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풀어갈지가 두산전 관련 포인트 중 하나다. 헥터와 임기영은 '우세 잇기'가 목표다. 헥터는 올 시즌 두산전에 3차례 나와 2승을 책임졌다. 불펜 난조가 없었다면 3전

전승을 달릴 수도 있었다. 헥터는 5월 19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최준환의 동점 스리런과 에반스의 결승 홈런에 승리가 날아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 임기영에게는 데뷔 첫 선발승의 좋은 기억이 있다. 4월 6일 SK전에서 선발로 새 출발을 한 임기영은 두 번째 등판이었던 4월 12일, 5이닝 3실점(1자책점)으로 선발 임무를 끝내면서 8-4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체력적인 부담은 KIA의 고민이다. 두 경기 연속 연장 혈투를 하느라 체력과 볼펜의 소모가 컸다. 이에 KIA는 27일 경기에 앞서 훈련을 최소화하면서 체력 회복에 신경 썼다. '호랑이 군단'이 선발진의 힘과 재점화한 화력으로 독심의 곰들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투수가 대주자로 나오겠조 사람들의 감탄사를 이끈 김주찬의 발이 있었다. 김주찬은 지난 26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8-7 승리를 만든 결승 득점의 주인공이었다. 1사에서 2루타로 출루한 김주찬은 폭투로 3루를 밟았다. 상대 배터리의 선택은 만무 작전. 비나디나와 최형우를 연속 고의 사구로 내보내며 만루를 채웠고, 안치홍이 '끝내기'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안치홍이 1루 쪽으로 땅볼을 쳤다. 상대 내야가 전진수비를 하고 있던 상황, 숨 막히는 홈 승부가 예상됐지만 1루수가 공을 잡기도 전에 김주찬이 홈을 밟으면서

경기가 KIA의 승리로 끝났다. 27일 덕아웃에서 나란히 물을 마시고 있던 김주찬과 이범호. "(김주찬) 정말 빠르더라. 이범호가 3루 주자였으면 런다운이었을 것이다"는 이호봉 스카이 스포츠 해설의 농담에 이범호는 "내가 3루에 있었으면 대주자로 교체됐을 것이다"고 답을 했다. "대주자가 없다면?"이라는 이야기에 "대주자 자원이 없으면 투수가 대주자로 나올 것이다"며 웃었다. ▲장혁아 미안하다 내야수 고장혁에게는 아쉬웠던 순간, 김기

태 감독에게는 미안했던 순간이었다. KIA는 지난 26일 7-7로 맞선 연장 10회 2사에서 이범호의 볼넷과 한승택의 내야안타로 2사 1·2루의 기회를 잡았다. 다음 타자는 최원준의 대수비로 들어갔던 고장혁. 박흥식 타격 코치의 조언을 받으며 타석에 설 준비를 했던 고장혁은 그러나 대타 최정민과 교체돼 덕아웃으로 향해야 했다. 결과는 대타 최정민의 헛스윙 삼진. 다행히 KIA는 연장 11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8-7 승리를 이뤘다. 27일 고장혁은 "간장은 됐지만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었

다. 내가 믿음을 못 드리고 있는 탓이다"며 아쉬워했다. 김 감독은 훈련 도중 "장혁아 어제 미안했다.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자주 이기다 보니까 뒷심의 '호랑이 군단'이다. 올 시즌 KIA는 11차례 연장 승부를 펼쳐 9승 2패의 성적을 만들었다. SK와의 주중 홈경기에서도 김선빈의 동점 투런, 비나디나의 기습 번트, 연속 고의 사구 등 진기한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두 경기 연속 연장전에서 끝내기 승리를 만들었다. 김기태 감독은 연장전에 강하다는 취재진의 이야기에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주 이기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었다. 위기 잘 넘겨가고 선수들끼리 믿음 가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